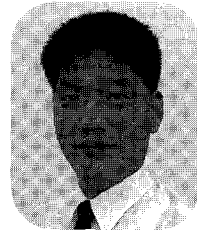




2월 지육시세는 2,25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유전자원(주) 생산팀

매년 2월은 민속 명절인 설날을 뒤로 하고 학생들의 방학과 개학 준비 등으로 마무리와 시작이 반복되는 어수선한 달이다. 양돈시장에서의 2월은 설날 이후 소비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달이기도 하다.

2월은 <그림 3>에서와 같이 도축지수가 연중 최저로 떨어지는 달이다.

2월에 출하하는 비육돈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시점은 전년 8~9월로써 매우 덥고, 모돈의 자돈 포육성적이 불량하여 자돈의 폐사가 대략 5%이상 증가하는 달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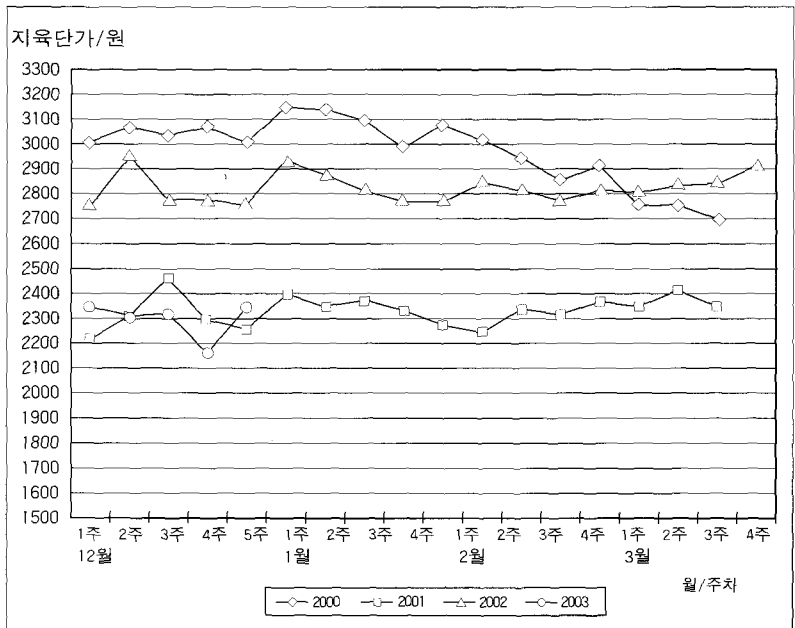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매년 2월은 소비도 감소하지만 출하도 동시에 감소하여 돼지가격은 1월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IMF의 영향으로 크게 가격이 폭등하였던 1998년 2월을 제외하고는 매년 같은 추세를 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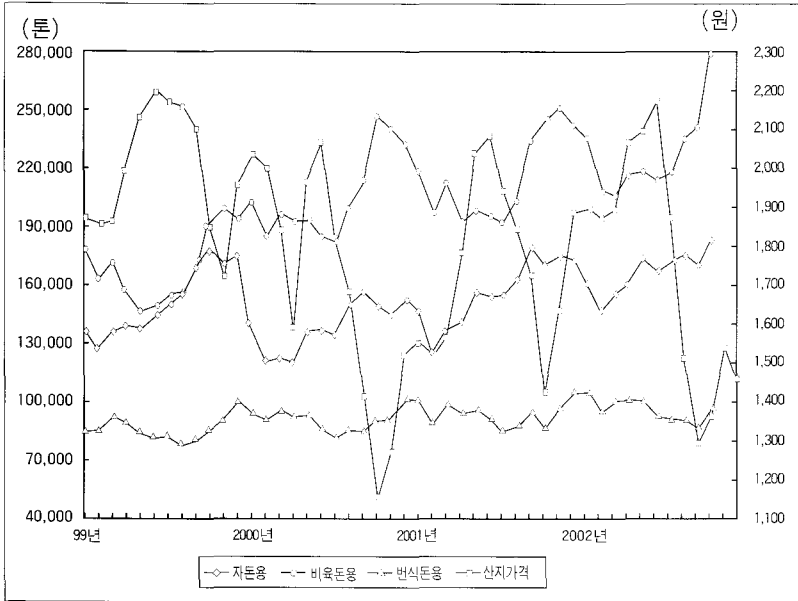
금년도에도 이러한 큰 추세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도 10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사료 생산량이 557,169톤으로써 전월대비 약 13%, 전년대비 약 12% 증가하여 2003년 1~2월의 출하두수가 전년 대비하여 약 10% 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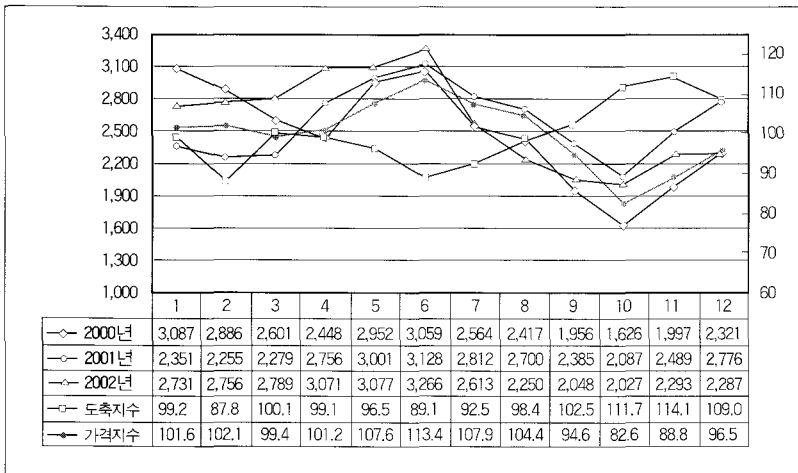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의 서울 2개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3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이러한 출하두수의 증가는 산지 돼지가격의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부분육 시장에서의 불안심리를 증가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되지 않고 출하두수가 증가하고 공급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돼지가격은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에서의 최근 4개년간 전국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1월과 2월의 가격의 진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월 출하물량이 상대적으로 설날 전 출하두수가 증가하고 설날 이후 출하두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서 소비가 줄어도 설날과 출하물량의 증가에 따라 가격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2003년 2월 전국의 비육돈 도매시장의 변화는 공급 측면에서는 출하두수의 증가와 경제적인 변화는 소비의 감소추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돼지콜레라 발생과 백신접종 등으로 이동이 제한되었던 돼지의 이동제한

이 해제되고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달도 2월로 출하물량의 증가는 반드시 수반될 것으로 보여 결국 가격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3년도 2월 전국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2,250원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